

호남 정치권 '빅뱅' 카운트 다운

새정치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26일 전체 회동 '메시지' 주목
 지도체제 외면받고 공천평가 다가오고...신당 출범도 가시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의 '빅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내용이 정점을 향해 치닫하고 있는데 신당의 출범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했던 정국회회가 내달 초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야권 재편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은 오는 26일 전체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 광주 방문에서 제안한 '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체제 구성은 물론 내년 총선 공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주류 성향 의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문-안-박' 공동 지도체제 구성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호남과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성)를 갖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결단을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탈당'까지 거론하며 통합 선대위 구성 등을 제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문-안-박' 공동지도체제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문 대표가 박 전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비주류에 대해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세력'으로 규정할 것도 치욕적인 부분이다.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직 사퇴와 복귀를 거듭했던 주승용 의원에 문 대표의 공동 지도체제 제안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표의 제안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도부 내에서 비주류와 호남 장구 역할을 했던 주 최고위원의 정치적 위상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주 최고위원은 "문 대표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예 최고위에 불참하는 등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 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며 끝까지 당내 패권 세력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선출직공직자 평가위가 이번 주부터 당무감사를 시작하고 여론조사 등 현역 국회의원 평가준비에 돌입하면서 호남 국회의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당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한데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갖는다.

박주선 의원도 오는 29일 통합신당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박 의원 측에서는 호남 국회의원 전원과 민집모(민주당집권을위한모임)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냄에 따라 이날 행사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박주선 의원은 다음 달 초만 천정배 의원과 신당 통합을 놓고 담판을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주선 전 전남지사가 이끄는 신민당도 이날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국회회가 내달 2일 내년 예산안 처리와 함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여야의 선거구 획정도 막판 협상에 돌입하고 있어 호남 정치권의 빅뱅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29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공동 지도체제 구성 제안을 거부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야권 재편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24절기 중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인 23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 교정에서 우산을 쓴 한 학생이 곱게 물든 단풍길을 걸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맛보고 있다. 이날 광주엔 2.2mm의 비가 내렸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車 100만대 기지 '보류'

기재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없는 예타 의미 없다" 보완 지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보류' 의견이 나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자동차 100만대 조성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2차 점검회의에서 예타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반영되지 않은 예타의 의미가 없다며 KDI에 보완을 요구했다. 자동차 100만대 도시 조성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수준인 적절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사 관계 재설정, 원·하청 격차 해소, 근로조건 향상, 숙련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KDI는

별도의 비용 대비 편익(B/C) 등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넣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완 의견은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국회 예산 확정 전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관심을 끌었던 B/C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0.85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 수치는 예초 계획한 3979억원에서 2500억원 안팎으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예초 예상했던 83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3900억원대로 사업비를 축소하는데 이어 또 다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경우 사실상 '무늬만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사실상 국내 제조업의 틀을 바꾸겠다는 도전"이라며 "기재부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공법 '급제동'

내일 경제성 검토 용역 발표
 사업비 절감 불가 결론날 듯

광주시가 저심도 공법으로 추진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대폭 늘어난 사업비를 줄이기 어려워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분부는 오는 25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기본설계 경제성(EV) 검토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철도 건설분부에 대한 추정예산 심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경제성 검토 용역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2호선 권역 사업비가 예초 2조71억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4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절감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업비가 예초 계획보다 10%(약 2000억원) 이상이 늘어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칠 수도 있는 만큼 시는 예상 증액분 4300억원 가운데 2300억원을 줄여야 재조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 용역 결과 절감 가능액이 목표치를 밑돌아 계획 전면 수정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사업비를 아무리 '쪼어짜도' 절감액이 1000억~15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저심도 공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문화전당 공식 개관 D-1
회장단 홍보대사 맡기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한다.

임항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전국시도민향우연합회(전국련) 임원단(단장 재경경남도민회 박연환 회장) 등 40여명이 25일 문화전당 공식 개

전국 시·도향우회 '문화전당 활성화' 힘 보탠다

관식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련은 전국 16개 재경(在京) 시·도향우회의 연합체로, 이 단체 임원들이 문화기 관 개관행사에 대거 참석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2면>

전국련 임원들은 이 단체의 대표총재를 맡고 있는 임 조성위원장의 초청으로 문화전당을 찾는다. 단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재경 경남도민회 박연환 회장 과 재경충남도민회장 등은 문화전당 홍보대사를 맡기로 했다고 임 위원장은 전했다. 전국련 임원들이 문화전당 홍보대사를 자청함에 따라 문화전당을 전국에 알리고 타 지역민들의 방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서민 올리는 대출사기 기승 ▶6면
 블루오션 다도해 - 신안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해남군 Haenam County

땅끝해남 농수산물로 김장하세요!

해남미소

해남미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 보세요 !!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해남의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더해 가장 귀한 상품만을 엄선 했습니다.

www.해남미소.한국
 www.hnmiso.com

해남미소 061-537-1472(일사천리)
 080-859-1100(무료)